

우주

스타링크 글로벌 가입자 수 700만명 돌파

우주 정의훈_02)368-6170_uihoon0607@eugenefn.com

스타링크 글로벌 가입자 수 700 만명 돌파

스타링크 가입자 수는 올해 3월에 500 만명, 6월 600 만명을 달성한 데 이어 8월 기준으로 700 만명을 돌파했다. 이는 서비스 국가 확대에 따른 성과로 올해 5월 한국에서 공식 서비스 허가 취득을 비롯해 카자흐스탄, 베트남(4 분기 예정) 등 아시아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으며, 인도에서도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. 또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.

스타링크는 최근 개인용 B2C 유저뿐만 아니라 항공 및 해상 분야 등 B2B 사업 영역 또한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있다. 연초 스칸디나비아항공(SAS)을 포함해 하와이안 항공, 카타르 항공 등 주요 항공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 해상 분야에서도 Maersk, 카니발 등 주요 글로벌 선박 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국내에서도 KT SAT, SK 텔링크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
이외에 최근 주목할 만한 진전은 D2D(Direct to Device) 서비스이다. 올해 초 T-모바일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에서 베타 서비스인 T-Satellite 를 시작했으며, 7 월부터는 유료 상용 서비스로 전환됐다. D2D 서비스 가입자들은 주변 기지국이 없어도 모바일 기기로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. 단, 아직까진 가능한 서비스가 문자로 제한돼 있으며, 향후 데이터 및 음성 통화 지원 등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를 예고했다.

다만 올해 지역 확대 및 서비스 다각화 등의 효과로 이어진 급격한 가입자 증가는 일부 지역에서 네트워크 혼잡과 서비스 속도 저하라는 문제를 발생시켰다. 실제로 나이지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가입 신청이 폭증해 일시적으로 서비스 가입이 중단되기도 했다. 이처럼 향후 스타링크는 지역 확장 및 서비스 다각화 외에도 서비스 안정성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.

한주 간 주요 뉴스

유텔샷, 원웹 지상국을 지구관측용으로 개방... Ka 대역 확장 통해 서비스 다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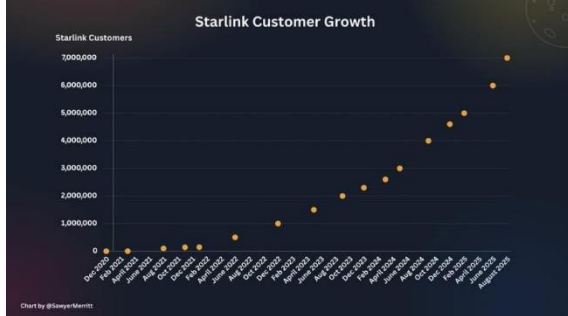
파이어플라이, 이스라엘 '골든 돔' 위성방어 구상에 로켓·위성 솔루션 제안

텔레샷, 유럽 IRIS² 사업 공백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라이트스피드 제안

비아셋·스페이스 42, D2D 서비스 위해 위성 주파수 공동 활용 합의

아마존 '프로젝트 카이퍼', 내년 3월까지 5개국서 광대역 서비스 개시 예정

도표 1. 스타링크 가입자 수 추이



자료: Starlink, 유진투자증권

도표 2. SAS-스타링크 파트너십(25 년 1 월)



자료: 언론보도, 유진투자증권

도표 3. 기내 스타링크 와이파이



자료: 언론보도, 유진투자증권

도표 4. 크루즈선 내 스타링크 와이파이



자료: Starlink, 유진투자증권

도표 5. 스타링크 D2D 서비스, T-Satellite



자료: T-mobile, Starlink, 유진투자증권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
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
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
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
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

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

투자기간 및 투자등급/투자의견 비율

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: 12개월 (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)

당사 투자의견 비율(%)

· STRONG BUY(매수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50%이상	0%
· BUY(매수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15%이상 ~ +50%미만	98%
· HOLD(중립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0%이상 ~ +15%미만	2%
· REDUCE(매도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0%미만	0%

(2025.06.30 기준)